

위드코로나 시대 온라인 주민총회 주목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 해결 ‘모두의 민주주의’ 실현
9개동 특색 맞는 마을의제 선정 규정 반영 추진키로

지난 7월 24일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주민자치회는 광주 최초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실시간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현장 참여를 최소화해 주민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유튜브 생중계로 주민 참여와 속의 과정의 편의성을 높였다.

광산구는 운남동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주민자치회가 설립된 9개 동(운남·우산·첨단2·어룡·수완·하남·첨단1·신가·신창)의 ‘2020년 내 삶을 바꾸는 주민총회’ 개최를 적극 지원, 최근 마무리했다.

광산ON 앱을 통해 마을의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광산구 유튜브로 주민총회를 생중계하며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실시간 댓글로 주민과 소통하는 등 광산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했다.

그 결과, 9개 동에서 제안된 48개 마을

의제에 대한 온·오프라인 투표에 광산구민 2만7천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당초 광산구 주민총회 목표였던 지역 인구의 1% 이상 참여를 훨씬 웃도는 결과다. 특히 첨단2동은 주민의 16%인 7천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마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성숙한 자치 역량을 기반으로 매년 1천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형 주민총회를 기획해온 첨단2동 주민자치회는 가장 먼저 코로나19 상황에 선제 대응해 온라인 주민총회를 기획했다. 특히 주민이 직접 발로 뛰며 스크린방송 송출이 가능한 관내 5개 거점에 협조를 얻어 주민총회 당일 총회 영상을 실시간 송출, 최대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주민자치회를 출범하고 첫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첨단1동도 는

에 된다. 공원과 녹지, 쉼에 초점을 맞춘 마을의제가 주를 이룬 가운데 1순위 의제로 ‘1등 공원·둘레길 환경개선’이 결정됐다. 주민자치회는 이를 반영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힐링을 실현할 계획이다.

신가지구 재개발로 사라질 은행나무길의 추억을 담은 신가동 주민총회도 눈길을 끈다. 코로나19로 은행나무길에서 많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총회는 개최하지 못했으나 은행나무길 테마로 꾸민 온라인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 제안 8개 마을의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하남’을 주제로 진행된 하남동 온라인 주민총회에서는 공원, 안전, 골목상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7개 마을의제가 논의됐다. 하남3지구 개발과 함께 여러 공공건물과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인 하남동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열정과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 지역을 지도에 표시한 홍수지도 제작으로 지

방정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신창동은 유튜브를 활용한 사전 녹화중계로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세대 공감과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있는 5개 의제가 상정됐고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조성’ 의제가 1순위로 선정됐다.

우산동 주민총회는 지난해 주민총회에서 제안돼 주민의 힘으로 해결한 송우초·광산중 LED벽화길 사업을 확대하고 적극 활용하는 내용의 ‘햇데햇데 우산동’ 마을의제가 1순위 의제로 선정됐다. 마을의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마을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참여로 마을의 랜드마크로 발전시키려는 주민들의 열정이 눈에 띈다.

수완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로 만드는 수완의 미래’라는 주제로 주민총회를 개최해 올해 주민총회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올해로 개청 10주년을 맞은 수완동인 만큼 현재의 수완을 주민이 직접 진단하고 고민해 마을의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발언을 통해 수완의 미래를 논의하



광주 광산구 9개 동이 최근 온라인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의제를 선정했다. 사진은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신창동 주민총회 현장을 찾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 <광산구 제공>

는 시간을 가졌다. 수완동도 사전 현장 녹화중계로 주민총회 영상을 8만 수완동 주민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이처럼 광산구는 코로나19로 주민의 자치활동과 참여,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이 허물어지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 주민 자치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계획단 모집부터 마을의제 발굴, 주민 스스로 마을의제와 마을계획을 논의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공론의 장인 주민총회 개최까지 준비 과정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마을활동가들도 큰 힘을 보탰

다. 주민과 행정의 끊임없는 고민과 다양한 시도로 물리적 거리는 유지하되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이 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의 주민자치를 준비하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자치가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마을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 누구나 온라인 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디지털토론 구축 등 코로나 시대 주민 의견을 구정에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고훈석 기자

광산구의회, 내일 임시회 개최

광주시 광산구의회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제258회 임시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4건을 포함한 조례안 12건, 일반안 7건 등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은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주거지역 인근 송신탑 부지 공공용도 활용 촉구안’을 채택하고, 14~17일 상임위별 조례안 및 일반안 등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18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뒤 의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영호 광산구의회 의장은 “제8대 후반기 광산구의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2년을 시작한다”며 “구민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고 맡은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산=고훈석 기자



마스크목걸이로 도로명주소 홍보

광주시 광산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마스크 목걸이 5천개를 제작해 이달 초부터 구청 입구 등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배부를 시작했고 마스크를 쉽게 쓰고 잊지 않는 데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산구 제공>

‘지역경제도 살리고, 추석도 준비하고’

우체국쇼핑몰서 지역기업 제품 최대 44% 특별할인

광주시 광산구가 추석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광산구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우체국쇼핑몰 임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할인행사는 그 연장선에서 실시된다.

행사 기간 누구나 우체국쇼핑몰 ‘광산브랜드관’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구입하면 15~44%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월 말 현재 광산브랜드관에는 24개 업체 119개 제품이 등록돼 있다. 임

점 품목은 가공식품을 비롯해 여행용품, 차 세정제와 연료 첨가제 등 다양하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21종도 구비된 상태다.

광산구 관계자는 “할인행사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에게는 신규 고객 확보와 매출 증가를, 소비자에게는 알뜰한 가격에 지역기업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체국쇼핑몰 광산브랜드관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기업의 다양한 판로 확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광산=고훈석 기자

광산경제백신회의, 소상공인 업체 냉방비 지원

펀딩모금액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최대 1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설립된 거버넌스 광산경제백신회의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냉방비를 지원한다.

1% 희망대출, 사장님 활력 지원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광산경제 활력 특강 등 9개의 ‘광산백신

시리즈’ 사업을 추진해온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시리즈 10탄으로 냉방비 지원사업을 기획했다.

냉방비는 일반용 또는 비주거용 주택용 20kW 이하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계약을 한 등록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이 대상이며 업소 당 최대 10만원이 지원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9~10월 중 납기일에 고지되는 한전 전기료 금액에서 자동상계 처리되며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이 밖에 냉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투계터광산 나눔문화재단 (062-945-6688)에서 한다.

광산경제백신회의의 관계자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조성된 펀드가 코로나

19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업체의 냉방비 지원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길이 열렸다”며 “이번 지원이 경제 침체 속에서도 가게를 열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산경제백신펀드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펀딩액을 모금해 5억원 이상의 모금 실적을 올렸다. /광산=고훈석 기자

기세도 위본그룹(주) 회장 수재의연금 5천만원 기탁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출향 인사인 기세도 위본그룹(주) 회장이 최근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광산구에 5천만원의 수재의연금을 기탁했다.

〈사진〉

기세도 회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위본그룹(주)은 종합건설기업으로 지난달 19일에도 광산구 임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선품기와 이불을 전달한 바 있다. /광산=고훈석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5-5530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문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5-5530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323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45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